

펄스형 Nd:YAG 레이저를 이용한 Al 판재의 용접 특성조사

한국원자력연구소 : 김덕현, 김수성, 김철중

1. 서 론

1960년 처음으로 투비 레이저가 개발된 이후 레이저의 용용범위는 점차 넓어졌으며 특히 CO₂ 레이저와 Nd:YAG 레이저는 이러한 용용분야에 상용화되면서 레이저 가공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.

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공분야 중에서 Nd:YAG 레이저 용접시에 1) 충전전압 및 펄스폭이 펄스에너지와 파워밀도에 끼치는 영향, 2) 알루미늄 판재용접을 위한 최소 출력조건, 3) 이러한 출력조건에 대한 용입특성, 4) 용접결함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.

2. 실험 방법

본 연구에 사용한 Nd:YAG 레이저는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것으로 200 Watt의 평균 출력과 최고 13 mrad의 빔 발산각을 가지고 있으며 레이저 출력은 레이저 펄스폭과 충전전압으로 조절된다. 용접시편으로는 1050 계열의 알루미늄 판재를 사용하였으며 용접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50%의 수산화나트륨으로 알루미늄 피막을 제거하였다. 밀폐된 용접가공기내에 헬륨을 주입하여 보호가스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집광렌즈의 위치와 용접속도는 CNC(Computer-Numerical-Control) 장치로 제어하면서 실험하였다.

3. 실험 결과

그림 1 은 Parallel plane 레이저 공진기 구조에서 충전전압 및 펄스폭의 변화에 따른 파워밀도와 펄스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. 파워밀도는 실험적으로 구한 레이저의 발산각과 집광렌즈의 촛점거리를 이용하여 계산한 값이며 같은 충전 전압이더라도 펄스폭이 길어지면 파워 밀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. 이것은 입력에너지의 증가에 따라 레이저봉의 렌즈 효과가 커졌기 때문이며, 펄스에너지는 충전전압과 펄스폭에 비례하여 증가함을 알 수 있다.

그림 2 는 충전전압을 340 Volt 로 하고 펄스폭을 변화시켰을 때 알루미늄 판재의 용입깊이를 나타낸 것이다. 펄스폭이 짧을 때는 레이저의 펄스 에너지가 부족하여 용입이 일어나지 않았으며, 7 msec 이상에서는 레이저의 펄스에너지가 충분하나 빔의 발산각이 커져 즉 파워밀도가 작아서 용입이 일어나지 않았다. 파워밀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알루미늄 시편에서 다양한 증기가 발생하나 펄스에너지가 부족한 경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.

그림 3 은 알루미늄과 상용 스테인레스의 경우 Defocusing 에 의하여 파워 밀도를 줄일 경우 용입 깊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준다. 스테인레스의 경우 용입 깊이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나 반사도가 큰 알루미늄의 경우 어떤 문턱치 이상에서 갑자기 용입 깊이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. 즉 알루미늄 판재의 레이저 용접시 파워 밀도가 어느 문턱치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문턱치 이상에서 효율적으로 레이저 에너지가 금속면에 전달된다.

그림 4 는 효과적인 용입상태를 얻기 위해 필요한 파워밀도와 펄스에너지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파워밀도가 증가할수록 펄스에너지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. 알루미늄 판재를 용접하기 위해 최소 4 MW/cm^2 이상의 파워가 필요하며 파워 밀도가 증가하더라도 펄스에너지가 3 Joule 이상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.

그림 5 는 파워밀도에 따라서 용입깊이와 용입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. 연구결과 용입깊이는 파워밀도와 펄스에너지가 커질수록 커지나 용입비는 펄스에너지에 무관하며 용접속도가 감소할수록 용입깊이가 깊어짐을 알 수 있다. 그러나 펄스형 레이저를 이용한 Seam 용접에서는 각 펄스의 중첩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용접속도에 한계가 있으며 용입형상은 파워밀도와 펄스에너지에 의하여 제어 되어야 한다.

펄스형 Nd:YAG 레이저를 이용한 용접 결합으로는 용접부의 중심에 생기는 기공과 용접부의 Hot cracking 을 들 수 있다. 용접부의 중심에 생기는 기공의 전형적인 모양은 사진 1 과 같으며 용접부의 외관은 Spatter 가 없이 깨끗하나 내부에는 다양한 기공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.

그림 6 은 파워밀도에 따라 기공이 발생될 확률을 나타낸 것으로 파워밀도가 높을수록 기공이 발생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.

사진 2 의 A 는 0.8 mm 판재를 완전봉입이 일어나도록 B 는 완전봉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레이저를 조절한 경우의 용입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같은 두께의 판재라도 완전 용입이 일어나는 경우 기공이 거의 생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.

4. 결 론

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- 1) Al 판재를 용접하기 위하여 펄스에너지에 따라 최소의 파워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펄스에너지가 클수록 적은 파워밀도가 필요하다.
- 2) 파워밀도가 클수록 용입비가 커지며, 용입비는 펄스에너지에 무관하나 펄스에너지가 클수록 용입이 커진다.
- 3) 레이저 용접시 발생하는 기공은 완전 관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항상 발생하였으며 파워밀도가 증가할수록 심하였다.
- 4) 본 연구에서 사용한 레이저를 이용할때 0.8 mm 이하 판재는 결함없이 Butt 용접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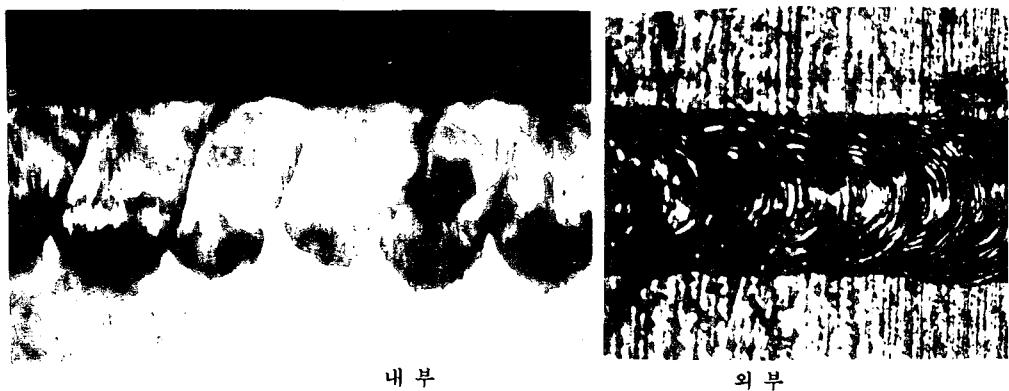


사진 1 용접부 내의 기공과 표면상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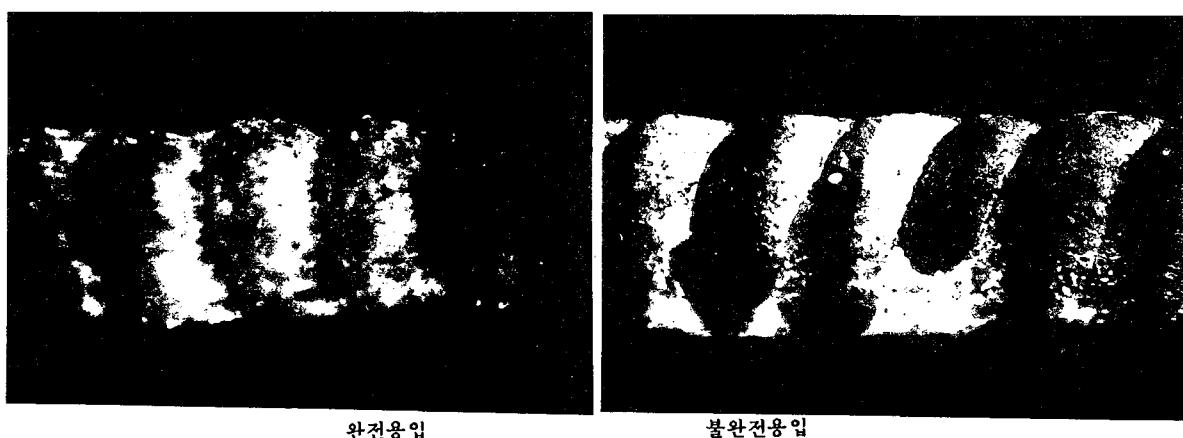


사진 2 0.8 mm 알루미늄 판재의 기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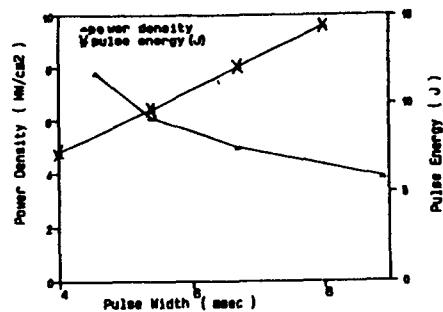


그림 1. 펄스폭에 따른 파워밀도와 펄스에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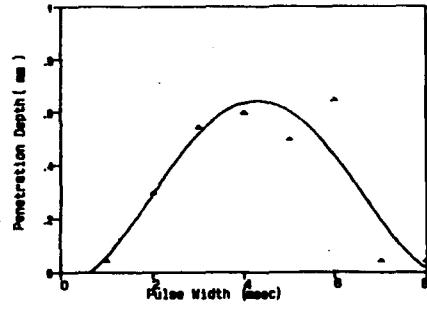


그림 2. 펄스폭에 따른 용입깊이 (340 Vol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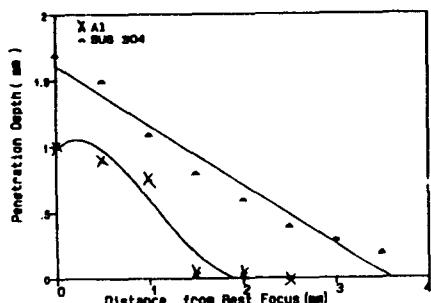


그림 3. Defocusing에 따른 Al과 SUS 304의 용입깊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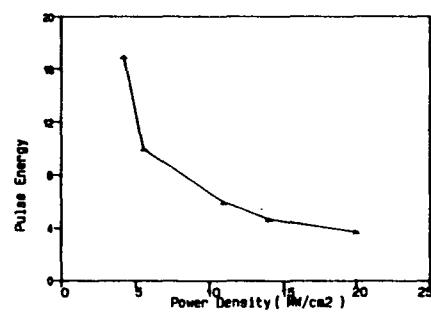


그림 4. Plasma 발생을 위한 파워밀도와 펄스에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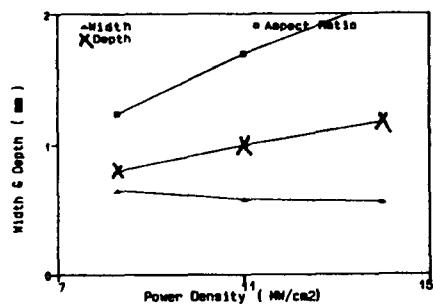


그림 5. 파워밀도에 따른 용입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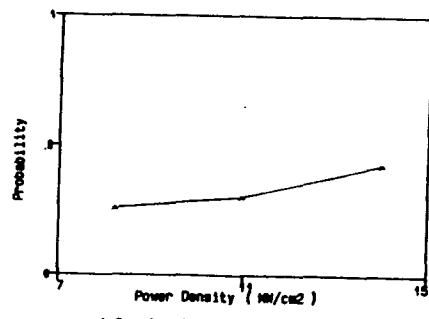


그림 6. 파워밀도에 따른 기공발생 확률